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권경우  
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본부장

한국 사회는 다양한 영역에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인구의 급격한 변화,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환경의 변화, 압축 근대화과 도시화에 대한 대응 등은 단순한 국면 전환을 넘어 사회의 근본적인 전환으로 다가온다. 특히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담론은 우리 인생의 노화처럼,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다. 물론 중앙 정부 차원에서 '도시 재생'이라는 사업에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준비함으로써 위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남은 의문은 특정 지역이나 계층이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 가운데 주목되는 것으로 대학과 지식 사회의 풍경이 있다. 현실은 '풍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처참하고 기혹

지역 문화와 학습 공동체

하다. 지난해 대비 올해 대학의 강좌 수는 6655개 줄었다. 그 수업을 감당하던 시간 강사들의 비명 소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나는 이러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대학의 문제이자 국가 학문 정책의 문제라고 생각하며, 그 영역에서 대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여러 대안 중 하나로 지역 문화 차원에서 지식 연구 네트워크와 같은 공동체를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식 사회의 문제를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찾자는 말이다.

지역사회는 교육, 복지, 문화, 환경, 의료 등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현안들이 펼쳐지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파편적이고 전문화된 지식만 넘치는 사회에서 총체적 지식의 향연을 지역사회에서 만들어 보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식의 문제를 대학과 지식인 등 특정 주체에 '위탁'해 왔던 게 사실이다. 이제 지식 생산의 구조와 방법을 지역 문화생태계 구조에서 고민할 때가 되었다.

지역 문화생태계 관점에서 그동안 마을 만들기와 마을 공동체 복원 사업 등은 혁신적인 사례뿐만 아니라 무너져 가는 공동체를 살리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은 피로감에 몰려 들어 있음

보게 된다. 아무리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활동과 주체는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대안이 '학습'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활동을 넘어 학습 공동체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이때 학습 공동체의 물리적 토대는 도서관, 동네 책방,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도서관은 공공 도서관뿐만 아니라 작은 사립 도서관 등이 촘촘하게 되어 있는 곳도 많다. 평생 학습 기관도 중요한 공간이자 자원이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공간이자 학습의 공간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배우는 공간이다. 지식인과 대중, 전문가와 일반인, 예술가와 주민 등의 구분은 이제 의미가 없다. 우리는 서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가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역사회라는 특정한 시공간적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발휘될 수 있는 일종의 '선한 영향력'이다.

다음으로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학의 연계를 통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학과의 연계는 대학에 갇혀 있던 교수와 연구자, 학생들이 실제 지역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지역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외부의 전문가를 불러 일회성 행사를 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출판문화진흥원은 '인문 활동가 지원 사업'을 전국 단위로 수년째 하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 전문가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과 성과가 지금 하는 것처럼 개인 연구자에 대한 일시적 인건비 지원 형태에 그친다면 '인문 활동'은 지역의 진원으로 축적될 수 없을 것이다. 인문 활동가 사업을 통해 발굴된 지식 연구자들은 지역의 도서관, 독서 동아리, 시민교육, 평생학습, 예술가 등 다양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절실하다.

지식인의 역할과 임무를 묻는 시대는 끝났다. 지식인이 아니라 연구자로서 혹은 전문가로서 다양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삶의 공간에서 일상의 문제를 고민하는 차원의 실천이 필요하다. 대학이라는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 차원에서 혁신적인 모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짜 지식이 필요한 시대이다. 마을 공동체, 시민 자산화, 사회적 경제, 공공미술, 문화 예술 교육 등 할 일이 태산이다. 지식이 필요한 곳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다.

종교칼럼

만약 일생이 하루라면



중현  
광주 중심사 주지

하루살이. 하루를 사는 인생. 눈을 뜨는 순간 인생을 시작해서, 눈을 감을 때 인생을 마감한다. 눈을 감았다는 표현은 죽음에 대한 비유로 흔히 쓰인다. 만약 인생이 하루라고 하면, 그래서 눈을 뜨는 순간 인생을 시작해서 눈을 감는 순간 인생을 마감한다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살더라도 밤이 찾아오면 눈을 감는다. 9시가 되기도 전에 일찌감치 잠자리에 드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2시가 다 되도록 자지 않고 뒤척이는 사람도 있고, 그때까지 이것저것 밀린 일을 하느라 바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생이 하루라면 유아가는 일어나 눈 뜬 채 세수하는 정도의 시간까지 일 것이다.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올 수준 정도는 되어야 밥을 먹든 출근을 하든 될 하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춘기 이전의

어린 시절은 아침 먹고 집을 나서기 전까지 일 것이다. 이때까지도 역시 어른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다. 물론 혼자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 아침을 챙겨주면 하루가 한결 편하고 여유로울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피곤한 출근 시간을 피할 수 없다. 꼭 그래야만 될 이유는 없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 다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건 나의 용기 없음에 대한 핑계일 뿐이다. 아침부터 출근하느라 진을 빼고 나면 하루가 다 간 기분이다. 요즘 청춘은 마치 아침부터 지옥철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처럼 시작부터 삶이 고달프다. 그들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문에 여유로운 모닝 커피는 꿈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오후가 되면 한바탕 피곤과 졸음이 몰려오듯, 인생의 오후가 되면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러저러한 눈치 보지 않고 잠깐이라도 쉬면 남은 시간 동안 몸이 훨씬 가볍다. 인생의 한가운데에 찾아오는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역시 잠시 쉬면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차분하게 살펴보는 것이다.

밤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하루의 피로를 푼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오히려 심신을 더 피로하게 한다.

집에 가면 쓰러져 자는 것이 남은 일의 전부다. 설명 일을 마치고 곧장 집으로 퇴근하더라도 멍하게 스크린만 쳐다보다 잠이 드는 사람들도 많다. 일생이 하루라면, 지금의 나처럼 야근 중인 사람들도 많다. 창밖은 어두운데 사무실은 형광등 불빛으로 환하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채 허둥지둥 서두르다 하루가 다 가 버린다. 그래서 해가 서녘 하늘로 누워누워 가는 노년기가 되어 서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조금이라도 감이 온다. 그러나 남은 시간은 어둠 밤 뿐이다. 일생을 시작할 때부터 세상 사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하루 밖에 안되는 일생이 아깝지 않은데 이런... 이미 늦었다.

우리는 과연 인생의 아침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기에 한잔의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삶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를 하여금 쫓기듯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것일까? 누가 우리의 여유롭고 행복한 하루를 방해하는 것일까? 일생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삶을 허비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욕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정신적 괴로움이 없고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은 모든 두려움을 초월한다."

존재하려는 욕망이 파괴되어 버리면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단지 천근의 짐을 내려놓는 것에 불과하다." 법구경에서 상강짜라는 어린 사미가 한 말이다. 바라는 바대로 되지 않으면 괴롭지만 두렵지는 않다. 욕망이 깊어지면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통제력을 상실한 욕망을 우리는 집착이라 부른다. 집착은 삶에 불안과 두려움을 그늘을 드리운다. 집착 중에서 가장 뿌리 깊은 집착은 자신에 대한 집착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에 대한 집착, 상강짜 사미가 말한 존재하려는 욕망이 바로 이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삶을 집착하기 때문에 허둥지둥 쫓기듯 자신의 삶을 허비한다.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거세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가 버리는 모래알처럼, 우리들에게 삶이 그러하다.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한 자는 지는 노을처럼 스러지는 자신의 일생을 후회하고 한탄하며 남은 삶에 조바심을 낸다. 이 모든 것이 고작 내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탓이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영원히 반복되는 삶의 무서움을 알고 난 다음, 현재를 후회 없이 살아야 한다고 했다.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 무한 반복된다. 어쩌면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다.

기고

관문형 폴리로 '광주다움'을 찾는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이제는 아득하여 아쉬움만 가득한 옛날로 기억될 수밖에 없지만 휴대폰이나 빼빼가 없었던 시절, 우리 지역 젊은이들에게는 만남의 장소가 있었다. 7080세대라면 누구나 아는 '우다방'이라는 곳이다. 충장로 초입에 위치한 광주우체국 앞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 계단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렸던 추억은 지금도 시민들 가슴 속에 빛바랜 흑백 사진처럼 간직되어 있을 것이다. 1982년에 처음 빼빼가 도입되었고, 1990년대 초반부터 휴대 전화가 보급되면서 시작된 정보 사회는 정신 차릴 틈도 없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 그 결과 어느 순간 사람들이 모이고 부대끼며 뿜어내던 인생 냄새는 물론이고 서로가 교류하고 교차하던 만남의 장소 또한 신기

루처럼 사라지고 있다. 기 드보르(Guy Ernest Debord)가 주장한 가상이 실재를 지배하는 '스펙터클 사회'처럼 실존이 아닌 가상 공간 속의 대화 상대를 찾아 헤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점차 인간성이 상실되고 사회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광주시는 그나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과 광주 비엔날레 등의 문화적 자산과 함께 '광주 폴리'라는 문화 예술 콘텐츠가 있어 현대 도시의 쇠막음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는 것 같아 다행이다. 광주 폴리는 201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특별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현재는 구도심 도시 재생의 마중물이 되고 도시 콘텐츠를 국내외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적인 건축·예술가들의 참여와 네덜란드 창조 산업 기금 4만 7500 유로 확보, 크라운해태 제과 후원, 캐나다 퀘백의 협업 요청 등 광주를 알리는 작은 실험포 거듭나고 있다.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국내외의 건축 예술 거장들의 30개 작품은 광주 옛 읍성터의 장소성 문제, 시민들의 공감대 부족 등 초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실용성과 기능성이 더해져 글로벌화하고 있

다. 또한 광주시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쇠락해지는 공동체 문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구 시청 사거리 노란색 구조물인 '열린 공간' (광주폴리 I)과 광주 영상박물관 옥상의 뷰 폴리(광주폴리 III)는 '우다방'을 대신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이자 포토 존으로,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민선 7기 들어서 '광주다움'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광주를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아마도 광주의 첫 관문인 틀게이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광주의 첫 관문에 서부터 광주다움을 느끼게 하고 싶었다. 광주를 찾아오는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광주의 첫 이미지를 소개하고 광주의 문화와 정체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하여 고속도로 틀게이트에 광주를 가장 빨리 쉽게 알릴 수 있는 '관문형 폴리'작품을 올해 말까지 설치하기로 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관문형 폴리는 광주의 상징인 무등산을 미디어 아트와 인터랙티브 파사드 형태로 나타내고 있다. 광주 정신을 담고 있는 의향, 예향, 미향 등 초기의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실용성과 기능성이 더해져 글로벌화하고 있

운동의 성지이며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빛의 도시로서 '광주다움'을 미디어 아트를 통해 구현할 것이다. 이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명품 틀게이트로서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광주 폴리 사업은 건축, 문화, 예술 프로젝트의 선두 주자임을 인정받아 2017년에 대한민국 공간 문화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그 밖에 2020 아시아중심도시 연차별 집행 계획에 국비가 반영되었으며, 아시아 도시 경관상 도전 등 전 세계에 광주 도시의 브랜드 가치와 광주 정신을 알리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광주 폴리는 서서히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함께 호흡하고,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한 정신이 깃든 컬러 콘텐츠로서 문화 예술의 찬란한 온기를 뿜어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광주 폴리는 올해로 8번째 도시의 탄생과 성장이라는 변화를 오롯이 감내하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스쳐 지나갔던 문화 예술 공간이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의 아픔을 치유하고, 공적 가치의 송고함을 광주다움으로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라는 도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社說

'5·18 기밀자료 공개' 진상 규명의 열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39주년을 앞두고 정부가 5·18 관련 군 문서와 해외 자료 등을 발굴하고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다. 특히 해외 외교문서와 군 관련 정보 등을 확보해 5월의 진상 규명에 나서자는 국민 여망을 반영하듯 바른미래당 김동철(광주 광산갑)의원은 해외자료 수집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동영 민주당화당 대표도 엇그제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안사 참고에 보관돼 있는 기밀문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안사 기밀문서가 5·18은 물론 댓글 공작, 세월호 사찰 등의 흑을 풀 수 있는 핵심인데도 역대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기겠다는 초심을 다시 새겨야 한다. 그리하여 군에서 보유한 채 제한적으로 열람되는 5월 관련 문서를 우선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5월 당시 광주와 국내 상황을 주시하고 추적했던 미국 측 문서도 적극 확보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요청을 받고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의 만행을 기록한 5만여 쪽의 방대한 문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우리 정부는 미 CIA, 국무부, 국방부 등 미국 정부기관에서 보유한 자료의 내용은 물론이고 존재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들 자료는 발표명령자, 헬기 기종조사, 암매장 등 5월의 핵심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열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기밀문서 공개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면세점 설치 광주 관광·경제 활성화 계기로

면세점 불모지 광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 정부는 최근 광주에 대기업 시내 면세점 한 곳을 신규 허용하기로 발표하면서 특히 신청 모집 공고를 냈다. 대기업 시내 면세점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면세품을 구입하고 출국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11월 면세점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광주·전남에는 아직까지 면세점이 한 곳도 없다. 물론 무안공항에 면세점이 있긴 하지만 전남 특산물만 면세 가격에 팔 수 있을 뿐이다. 울산에도 시내 면세점이 있지만 광역시 가운데 면세점이 없는 도시는 광주와 대전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엔 시내 면세점 허가는 광주 지역 관광 및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가장 많은 74.3%가 쇼핑을 하

고 싶어도 마땅히 쇼핑할 곳이 없다고 답했다. 쇼핑이 외국인 관광객 유인의 키 포인트라는 얘기인데 면세점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의 발길을 붙잡게 되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

면세점 입지에 따라 광주의 현안인 어등산 개발이나 특급호텔 신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어등산에 면세점이 들어설 경우 12년째 표류 중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추진 중인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들어선다면 특급호텔 신축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면세점은 관광객 유인 효과가 가장 큰 사업인 만큼 광주에 시내 면세점 첫 허용을 계기로 이를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지금부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투자 기업과 입지 선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5·18 사건 기획설'은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품어 왔던 의혹 중 하나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장세동이 있다. 전두환의 최측근이자 특전사 작전참모였던 그가 5·18 1주일 전인 1980년 5월 10일쯤 광주에 와서 27일까지 머물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세한 그의 행적은 아직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 그는 왜 비밀리에 광주에 왔고 어떤 작전을 수행했을까?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에서 김홍장 전 미 정보부대 정보관과 허장환 전 보안사 특명 부장은 '5·18은 계획된 시나리오'라고 했다. 그들은 전두환이 21일 도

의대 투입해 유언비어 퍼뜨리고 과격 시위 조장, -도청 앞에서 시민들 향해 집단 사격, -시민들이 무장하며 계엄군 외곽으로 철수해 무정부 상태로 방치, -'국난을 극복하는 전두환 장군' 이미지를 만들어 사태 해결하고 상황 종료.

그러나 1주일간의 '기획'은 너무 철저했지만 광주 시민들은 그들의 의도대로 휘둘리지 않았다. 전두환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충기를 회수했으며 단 한 건의 강도 사건도 없이 완벽한 치안 질서를 유지했다. 당황한 신군부는 마지막 작전을 당초 계획했던 25일이 아닌 27일 새벽으로 연기해

야만 했다. 이번엔 증언한 두 사람이 5·18 전체를 파악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나리오를 실행하고 미국에 보고한 당사자의 증언이어서 개인성은 충분히 보인다. 결국 12·12와 5·18은 정치군인들이 국가권력을 찬탈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하루 빨리 출범하고 관련자들의 증언도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역사는 용기 있게 나서는 증언자들이 바꾸지 않겠다. /유재만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                   |
|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제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선  | 대표 FAX 222-4918 | 경영지 월 금 220-0515          | 문화사업 금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치부 220-0632   | 체육부 220-0633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
|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FAX 222-0195)            | (FAX 222-0195)    |
|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전남본부 220-0642  |                 |                           | (FA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